

쓰레기 천지 바가지 상흔 ... '왕짜증 피서지'

광주·전남 곳곳 쓰레기투기·불법취사·주취행패 눈살 해수욕장 숙박시설 '부르는게 값'...자릿세 문제 논란도 "피서 왔다 되레 열받는다" 불만 속 단속기관은 팔짱

연일 33도를 훨씬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피해 찾아 간 피서지들이 피서객들을 오히려 더 열을 받게 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불법 취사행위·주폭(酒暴·음주폭력 행위자)들의 행패 등 무질서가 난무하고 바가지 상흔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서객은 피서객대로, 피서객들 대상으로 한 장삿꾼들은 장삿꾼대로 남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단속 주체인 관계기관은 사실상 소극적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질서 여전한 피서지=지난 9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임곡교 아래 하천 둔치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한쪽에선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고기를 굽는 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선 닭을 삶아 먹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곳은 국가하천으로, 엄연히 취사금지 구역이다.

하지만 피서객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가 넘고 피서객들이 서서

히 자리를 뜨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선 시민의식이 실종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술판을 벌이며 흥을 돋우던 취객들은 주변의 눈치에 아랑곳 않고 고성을 질러댔다.

또 피서객들이 다녀간 자리엔 먹다 남은 치킨이 들어 있던 포장 용기와 맥주·소주 병들이 굴러다녔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이 섞이면서 진동하는 악취도 코끝을 찔렀다.

피서철 이곳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양은 대략 100ℓ 짜리 종량제봉투 40~50개, 실종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모습들이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광주지역 주요 피서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피서철 광주 지역 주요 피서지에선 평일 평균 5t, 주말·휴일 10~15t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일각에선 들고 온 물건과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시민의식의 정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가지 요금 여전=지난 8일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온 정모(38·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1박에 13만 원을 달라는 민박 주인의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평소엔 7만~8만 원 하던 숙박비가 한 달 만에 5만~6만 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정씨는 "해수욕장 주변 펜션과 민박들이 하루 15만~30만 원을 요구하는데, 국내 좋은 호텔 가격도 이보다는 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질적인 자릿세 문제도 여전했다. 이날 해수욕장 백사장엔 텐트를 치려던 박모(42)씨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협의회원들의 저지로 텐트를 치지 못했다. 이른바 자릿세 1만~2만 원

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내가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데, 자릿세까지 요구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위 식히러 왔다가 오히려 열만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날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상가에선 주인과 피서객간 말싸움이 오갔다.

피서철, 한류 쟁겨보려는 가게 주인들의 폭력 때문. A가게에선 컵라면이 1200원→2000원짜리로 둔갑해 있었으며, 맥주 캔과 캔커피는 각각 1500원→3000원, 캔커피 1000원→2000원에 팔렸다. 이 때문에 아예 대부분의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직접 가져가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 하천 둔치에 체육시설(족구장) 이용객을 위해 설치한 수도시설에서 일부 피서객들이 불법·냄비 등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전남 12일째 폭염특보

이달 낮 평균기온 34.9도...작년보다 3도 높아

내일 비소식...더위 주춤

9일 광양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마솥 더위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를 기해 나주를 마지막으로 광주·구례·광양·곡성·화순·함평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이외 전남 대부분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날 낮 기온은 광양이 37도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구례 36.1도 ▲장흥 35.3도 ▲곡성 35도 ▲순천 34.9도 ▲화순 34.6도 ▲광주 33.3도 등이다.

광주·전남은 지난달 29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뒤 12일째 지속하고 있

다.

지난해엔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수는 모두 4일이었다. 이달 낮 최고 평균기온은 34.9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31.9도)와 평년기온(31.8도)보다 각각 3도와 3.1도 높은 기온이다.

이번 더위는 10일까지 이어진 뒤 11일 비소식과 함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떨어져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남쪽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고온현상이 지속했다"며 "12일 부턴 33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도로를 식혀라

9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33.3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날 소방대원들이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앞 버스정류장 일대 도로 위에 물뿌리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희룡 발언' 물의 전남대교수 직위해제

전남대학교가 현직교사 대상 강의중 성희룡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대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전남대는 최근 열린 '2015년 중등교원 1급 정교사 자격 및 직무연수'에서 성희룡 발언을 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A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는 이와 함께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남대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룡·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 남친 카드 훔쳐 2400만원 빼내

○...빛을 감으려고 전에 사귀던 남친친구가 일원 중인 병원 휴게실에서 직불카드를 훔친 뒤 자신의 계좌로 수천 만원을 계좌이체한 30대 여성이 경찰서행.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여·39)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A병원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전 동거남 김모(45)씨의 호주머니에서 직불카드를 훔친 뒤 자신의 통장으로 2400만 원을 이체한 혐의.

○...이씨는 두 달 전 김씨와 헤어진 뒤 동거남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지난 5년간 동거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많은 돈을 빌려 썼다. 빛진 돈을 감으려고 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시간당 22mm 폭우에 아파트 담장 '기우뚱'

최근 시간당 22.2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지역 한 아파트 담벼락이 기우는 사고가 일어났다.

9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A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 앞에 설치된 담장 100m 중 30m가 10도 가량 기울었다. 이 담장은 아파트와 도로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소방서·북구청·한전

관계자들은 현장에 출동해 주민 등의 접근을 차단한 뒤 신고접수 7시간 만에 보강재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 담장엔 길이 3m 크기의 지지대가 받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3시를 전후에 쏟아진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담장 아래 흙이 유실되면서 담장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구유지 혈값 매각 의혹' 김종식 전 서구청장 입건

광주시 서구 백마산 구유지를 혈값에 매각해 구(區) 재정 손실을 가져온 의혹을 사고 있는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7일 김 전 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 구유 재산 매각 사유(신청사 건립재정 확보)가 사라졌음에도 해

당 구유지를 혈값에 매각시켜 구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4항)에 따라 처분사유가 상실된 상태라면 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의회 승인 아래 추진해야하는 데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 재정 손실을 불러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나 "백마산 구유지

매각 행위는 구청장으로서의 재량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09년 신청사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마산 구유지(14만4502㎡)를 팔기로 했다. 최종 감정가격은 34억8000만원이었지만 유찰을 거듭하면서 지난 2014년, 13억여원에 광주의 한 건설사 측에 매각됐다. 당시 공시지가는 15억여원이었고, 서구가 공고한 예정가격은 11억원에 불과해 혈값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2~5층 사무나, 주택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용 6억)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010-7384-7800 /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건물 7층사무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⑤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2~5층 사무나, 주택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용 6억)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010-7384-7800 / 010-6670-9800